

가정형태에 따른 유아의 발달수준 비교 연구: 다문화·저소득·일반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방소영¹⁾ 황혜정²⁾

요약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유아와 저소득가정 유아의 발달을 일반가정 유아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전체 176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적 체크리스트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인성과 사회성 발달, 언어와 읽고 쓰는 능력, 과학적 사고, 수리적 사고, 사회학습, 예술, 신체 발달영역인 모든 하위영역과 전체 발달 영역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들과 저소득층가정의 유아들이 일반가정유아들에 비해 발달 수준이 낮으며,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보다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발달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유아와 저소득가정 유아 간에도 또 다른 사회적·심리적 요인이 작용되고 있어 서로 다른 발달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유아와 저소득층가정의 유아들이 일반가정 유아와는 다른 각각의 교육적 요구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유아와 저소득가정 유아들의 사회적 요구, 가정적 요구, 개인적 요구가 조화된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취약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 발달

I. 서론

발달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변화의 연속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변화는 유아기에 급속도로 진행된다. 유아는 발달과정 안에서 언어적, 신체적,

* 본 연구는 2010학년도 경기대학교 대학원 연구원장학생 장학금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경기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2) 경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으로 성장함으로써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유아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성장하고 모방하면서 학습하게 되는데, 특히 부모의 언어와 행동 및 부모 간의 상호작용은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기 발달에 더욱 중요하다. 최근 들어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고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가정 유아와 달리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과 같은 취약가정의 자녀들은 발달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언어능력에 어려움(이현경·서현·김동례, 2009; 문무경·조혜주, 2008; 황상심·정옥란, 2008)을 겪고 있으며, 저소득가정 자녀 역시 낮은 인지발달과 허약한 신체적, 정서적 문제(강문화·강차연·김경·김승경·김윤희, 2007)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정 자녀의 다양한 부적응 및 발달의 지연은 경제적 수준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부모의 심리적 문제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적 능력은 유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부모의 낮은 경제수준은 물리적 환경과도 연관을 갖기 때문에 언어, 지능, 정서, 문제 행동 등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희·황혜정, 1998; 박민주 2005; 박현선, 2008).

이처럼 저소득가정의 자녀는 양육자가 제공하는 환경에 의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고 다문화가정 자녀는 경제적 어려움과 동시에 외국인 부모라는 이중적 취약 환경으로 인해 교육에 제한을 받고 있음(김경숙·공진희·이민경, 2007; 조영달, 2006)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전반적인 발달 수준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과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을 일반가정 자녀와 비교해 보고 이들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에게 교육적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근래의 유아교육현장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와 저소득가정 유아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가족이란,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또는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가 결혼을 하여 이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을 해 이혼 가정이나 본국에서 결혼한 가족이 함께 국내에 이주해 온 경우, 북한에서 입국해 한국인이나 외국인과 결혼을 한 새터민 가족을 일컫는다(정하성·유진이·이장현, 2007).

2008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891,341명이 국내 거주 외국인이었으며, 이들 중 이주민 노동자와 국제결혼이주자는 640,119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 외국인자녀의 경우 이주노동자 자녀의 수가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고,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많아 그 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

으나(오성배, 2009), 행정안전부(2008)의 보고에 의하면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58,007명이고, 이 중 만 6세 이하의 유아기 자녀가 33,140명으로 5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마다 결혼자 이민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9년 전체 결혼이민자 체류건수는 125,087건, 2010년도에는 141,654건(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1)으로 전년도에 비해 13.2% 증가했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유아 역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정 유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일반가정 영유아의 발달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반가정 영유아에 비해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언어영역 능력은 낮았지만, 신체영역, 언어영역, 또래관계영역에서는 일반가정 영유아에 비해 높은 수준인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문무경·조혜주, 2008). 또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유아의 건강, 표현, 언어, 탐구 생활 영역에 따른 발달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이현경 외, 2009)에서는 일반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 간의 발달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북도 보육정보센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자녀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반가정 유아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심각한 부적응이나 지체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이현경 외, 2009. 재인용).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연구도구나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언어의 문제에서는 공통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의 발달 및 적응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유아기의 부분적인 부적응이나 발달의 지연은 유아의 성장해감에 따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들 발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가정 중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았는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절대 빈곤율은 57.5%인 것으로 조사되어(보건복지부, 2009a) 이들의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외국인 부모라는 사회적 이질감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부정적인 환경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발달상의 문제는 저소득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압박은 부모의 심리·정서적 문제, 양육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박현선, 2008), 가정의 평균 수입은 학습을 자극하는 물리적, 정서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이나 양육태도, 물리적 환경이 달라지고 유아의 성취 역시 달라지는 것이다(이세희, 2006, 재인용; Yeung, 2002).

보건복지부(2009b)의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빈곤층가정의 경우 월평균 총 소득이 약 92만원, 차상위층이 약 144만원, 차상위 이상층이 약 35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가구의 전체 월평균 소득은 약 323만원이었으며, 빈곤층 아동청소년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은 전체 월평균 소득액의 28% 수준이었다. 또한 아동청소년 절대 빈곤율³⁾은 전체적으로 약 7.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청소년의 약 4.2%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120%에 있는 차상위 가구에서 자라고 있었다. 중위소득 50%미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약 11.5%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가구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정의 경우 권위적인 부모의 성격이나 억압된 양육태도로 인해 교육이 실패하거나 부모의 예민한 인간관계로 인해 유아의 사회적 수용성이 편파적일 수 있다(조남희, 2006). 저소득가정의 유아는 사회성과 언어발달, 신체발달 영역 등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해미, 2009; 박민주, 2005; 신혜영·김명순, 2008). 특히 저소득가정 자녀가 중산층가정 자녀에 비해 언어적 속도가 느리고, 미숙한 발음을 더 오랫동안 하며, 문장의 길이도 짧은 경향이 있다(Edwards, 1989; Heath, 1983). 저소득가정 유아의 경우 낮은 인지발달과 허약한 신체, 낮은 학교생활대처능력과 정서적인 문제로 열등감, 패배의식이 팽배하다는 연구(강문희 외, 2007) 등 저소득가정 유아의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소득가정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수준, 생활수준이 모두 중류층에 비해 낮고, 저소득가정 자녀의 정서·문제행동의 출현율이 비교적 높았는데, 이는 저소득가정 부모들이 자녀의 사회적 성공을 지지해 줄 능력이나 동기가 부족하여 적절한 역할 모델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저소득가정 자녀들은 성격 형성이나 발달에 있어서도 심한 장애를 일으키며,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키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Alexander & Entwisle, 1988; McLoyd, 1998). 또한 저소득가정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받는 스트레스, 불안감, 억압감, 초조감으로 인해 자녀를 학대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애정결핍을 초래하게 된다(Nievar & Luster, 2006). 즉,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결핍은 유아의 정서·행동문제 및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어려

3) 전체 아동청소년 중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아동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

음으로 인한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저소득가정의 유아는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 행동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상태와 조건을 가지고 있다(김경희·황혜정, 1998)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조건이 유아의 발달을 저해하는 직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유아기는 질적으로 풍부한 자극을 필요로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 결과들은 다문화가정과 저소득가정의 유아가 일반가정 유아에 비해 궁핍한 물리적 환경에 놓여있으며 이는 사회적, 정서적으로 결핍된 환경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유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적되고 논의되어지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복지 서비스의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과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 있는 결과로 다문화가정 유아와 저소득 가정 유아의 발달에 대한 논쟁 시 일치된 관점을 찾기란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기관, 복지시설, 지역적 차원의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저소득층·일반가정 유아의 발달 특성 및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실시되고 있는 중재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제공자인 유아교육전문가나 교사뿐만 아니라 수혜자인 유아에게도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대표적인 취약가정인 저소득가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국인 부모라는 복합적 상황에 놓여있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발달을 일반가정 유아와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저소득·일반가정 유아의 발달을 비교해봄으로써 이들의 발달적 차이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다양한 가정환경의 자녀 발달 실태 및 차이에 대한 결과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당위성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발달 특성을 가진 유아를 교육하는 유아교사들에게 가정환경에 따른 발달의 차이를 이해시킴으로써 교육계획 및 상호작용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자료로 이용함으로써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을 연계하는데도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1. 유아가 속한 가정 유형에 따라 유아의 영역별 발달수준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는 경기도 안산시의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 175명(100.0%)으로 다문화가정 유아 27명(15.4%), 저소득가정 유아 74명(42.3%), 일반가정 유아 74명(42.3%)이었다. 다문화가정의 유아 중 남아가 13명(7.4%), 여아가 14명(8.0%)이었으며, 저소득가정의 유아 중 남아가 36명(20.6%) 여아가 38명(21.7%), 일반가정 유아 중 남아가 35명(20.0%), 여아가 39명(22.3%)으로 전반적으로 성별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전체 대상 유아의 생활연령 평균은 약 55(SD 7.6)개월이었으며, 다문화가정 유아의 평균생활연령은 약 53(SD 11.4)개월, 저소득가정 유아 약 57(SD 5.4)개월, 일반가정 유아 약 56(SD 5.9)개월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의 유형은 결혼이주민 가정(81.7%)과 이주민 노동자 가정(18.3%)이었다. 다문화가정 유아 부모의 출신국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경우 한국이 23명(85.2%)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인도가 각각 2명(2.0%)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중국이 14명(51.2%)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6명(22.2%), 한국 3명(11.2%), 필리핀 2명(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은 부모 중 한 명 혹은 둘 다 외국인인면서 경제적 수준이 저소득에 속하는 가정으로 자녀의 보육료를 국가로부터 100% 보조 받는 가정의 자녀로 정의하였다. 저소득가정은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하는 가정의 유아로 자녀가 재원중인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70% 이상 지원 받는 가정의 자녀로 정의하였다. 연구 수행 당시인 2010년 보육료 지원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100%, 70%, 50% 등 층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보육료를 100% 지원 받는 유아만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아 70%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도 포함시켰다. 또한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면서 국가로부터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료지원을 받지 않는 가정을 일반가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연구대상을 모집하는데 있어 한부모가정이나 조부모가정의 자녀 등은 제외하였다.

<표 1> 대상 유아의 구분

단위:명(%)

구분	다문화가정 유아 (평균 53.3개월)	저소득가정 유아 (평균 56.6개월)	일반가정 유아 (평균 55.5개월)	전체 (평균 56.9개월)
남아	13(7.4)	36(20.6)	35(20.0)	84(48.0)
여아	14(8.0)	38(21.7)	39(22.3)	91(52.0)
전체	27(15.4)	74(42.4)	74(42.3)	175(100.0)

<표 2> 다문화가정 부모의 출신국

단위:명(%)

구분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인도	계
부	23(85.2)	2(7.4)	-	-	-	2(7.4)	27(100.0)
모	3(11.2)	14(51.2)	6(22.2)	2(7.4)	1(3.7)	1(3.7)	27(100.0)

2. 연구 도구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 일반가정 유아의 발달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Meisels(1993)이 개발하고 정혜영(2001)이 수정·보완한 발달적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발달적 체크리스트는 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공인타당도 분석결과 우리나라 유아에게 사용 가능성이 보고되었다(김지영, 엄용화, 이현옥, 2000; 정혜영, 2001, 재인용). 이 도구는 유아의 교실의 다양한 영역과 일과를 통해 나타내는 기술, 지식, 행동, 성취를 체계적으로 관찰, 평가, 기록하기 위한 도구로 인성과 사회성 발달, 언어와 읽고 쓰는 능력, 과학적 사고, 수리적 사고, 사회학습, 예술, 신체 발달의 7개 영역 6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마다 기능적 요소 및 수행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유아의 담임교사가 문항을 읽고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수행지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1점), 가끔 관찰된다(2점), 자주 관찰된다(3점)로 나뉘어 있으며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화하여 점수처리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영역별 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5-.96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 발달적체크리스트의 내용 및 신뢰도

영역	하위 내용	문항수	Cronbach's α
인성과 사회성	자아개념, 자기조절, 학습에의 접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갈등해결	16	.96
언어와 읽고 쓰는 능력	듣기, 말하기, 문학과 읽기, 쓰기	11	.95
과학적 사고	관찰·조사하기, 질문하기와 예견하기, 결론내리기와 설명하기	14	.95
수리적 사고	수리적 사고에 접근하기, 기하와 공간관계, 확률과 통계, 패턴과 관계, 측정, 수조작	6	.96
사회학습	사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권리와 책임감, 지역사회와 이웃, 사회적 상호의존	4	.96
신체	대근육발달, 소근육발달, 건강과 안전	7	.96
예술	표현과 묘사, 예술적 감상	9	.96
전체		67	.96

3. 연구 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이 많은 경기도 안산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시립어린이집 6개 시설과 사립어린이집 8개 시설 총 14개 시설을 선정하였다. 이 중 11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다문화가정 유아와 14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저소득가정 유아 및 일반가정 유아를 모집하였다.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시설장 및 교사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유아의 담임교사가 체크리스트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을 이용하여 유아의 발달수준 평균점수를 가지고 분석하였으며, 다문화·저소득층·일반가정 유아 간 발달적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어떤 집단 간의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유아의 발달 수준을 7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점수 평균을 살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발달체크리스트의 전체적인 발달수준을 나타내는 발달총점 평균 2.41($SD=.50$)을 집

단 간 비교해본 결과, 다문화가정 유아 2.06($SD=.49$), 저소득가정 유아 2.23($SD=.38$), 일반가정 유아 2.88($SD=.16$)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정 유형별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F 검증을 실시한 결과, 발달 총점에서 가정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4.25, p<.001$).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가장 낮은 발달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저소득가정, 일반가정의 유아 순으로 발달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발달체크리스트의 하위영역별로 가정유형에 따른 유아의 발달 평균 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인성과 사회성, 언어와 읽고 쓰는 능력, 과학적 사고, 수리적 사고, 사회학습, 예술, 신체 발달의 모든 영역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저소득가정 유아의 평균점수가 그 다음으로 낮고 일반유아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각 영역별로 발달을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개념, 자기조절, 학습에의 접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갈등해결 등의 기능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인성과 사회성 발달 영역’의 평균점수는 2.60($SD=.47$)이었으며, 다문화가정 유아는 2.20($SD=.61$), 저소득가정 유아는 2.42($SD=.41$)로 나타나 일반가정 유아의 평균점수인 2.94($SD=.14$)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57.74, p<.001$).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가장 낮은 발달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저소득가정, 일반가정의 유아 순으로 발달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듣기, 말하기, 문학과 읽기, 쓰기의 기능적 요소를 포함하는 ‘언어 읽고 쓰는 능력 영역’의 전체 평균점수는 2.45($SD=.57$)였으며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1.89($SD=.62$)로 가장 낮은 발달 점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저소득가정 2.23($SD=.47$), 일반가정의 유아 2.89($SD=.21$) 순으로 발달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75.85, p<.001$).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가장 낮은 발달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저소득가정, 일반가정의 유아 순으로 발달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관찰하고 조사하기, 질문하기와 예견하기, 결론내리기와 설명하기의 기능을 포함하는 ‘과학적 사고 영역’에서 전체평균점수는 2.20($SD=.67$)이었으며, 다문화가정 유아 1.56($SD=.53$), 저소득가정 유아 1.88($SD=.53$)로 2.76($SD=.32$)의 일반가정의 유아 보다 낮은 수준의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99.29, p<.001$). 사후 검증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가장 낮은 발달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저소득가정, 일반가정의 유아 순으로 발달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수리적 사고에 접근하기, 패턴과 관계, 수 조작, 기하와 공간관계, 측정, 확률

과 통계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수리적 사고 영역’의 전체 평균 점수는 2.28($SD=.64$)이었으며, 이 역시 다문화가정 유아 1.67($SD=.48$), 저소득가정 유아는 1.99($SD=.60$)로 일반가정의 유아의 2.79($SD=.23$)보다 낮은 수준의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86.13, p<.001$).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가장 낮은 발달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저소득가정, 일반가정의 유아 순으로 발달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사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사회적 상호작용, 권리와 책임감, 지역사회와 이웃 등의 기능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학습 영역’의 전체 평균 점수는 2.41($SD=.59$)이었으며, 다문화가정 유아는 2.00($SD=.66$), 저소득가정 유아는 2.12($SD=.46$), 일반가정 유아는 2.92($SD=.20$)로 나타났다($F=74.30, p<.001$).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다문화가정 유아와 저소득가정 유아의 발달 수준은 일반가정 유아의 발달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 유아와 저소득가정 유아의 발달 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표현과 묘사, 예술적 감상의 기능을 포함하는 ‘예술 영역’의 평균점수는 2.53($SD=.55$)이었으며, 다문화가정 유아는 2.04($SD=.57$), 저소득가정 유아는 2.36($SD=.46$)으로 일반가정 유아의 2.88($SD=.23$)보다 낮은 수준의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44.87, p<.001$).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가장 낮은 발달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저소득가정, 일반가정의 유아 순으로 발달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대근육 발달, 소근육 발달,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기능을 포함하는 신체발달 영역의 전체 평균 점수는 2.73($SD=.41$)이었으며,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2.39($SD=.52$)로 가장 낮은 발달 수준을 보였으며, 저소득가정 2.64($SD=.42$), 일반가정의 유아 2.96($SD=.11$)으로 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1.60, p<.001$).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가장 낮은 발달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저소득가정, 일반가정의 유아 순으로 발달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모든 발달영역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와 저소득가정의 유아는 일반가정의 유아보다 낮은 발달수준을 보였고, 다문화가정 유아는 저소득가정 유아보다 사회학습 발달 영역을 제외한 모든 발달 영역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다문화가정 유아의 발달수준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저소득가정 유아의 발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정유형 및 발달영역별 발달수준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인성과 사회성 발달	다문화가정 유아	27	2.20 _a	.61	57.74***
	저소득가정 유아	74	2.42 _b	.41	
	일반가정 유아	73	2.94 _c	.14	
	합 계	174	2.60	.47	
언어와 읽고 쓰는 능력	다문화가정 유아	27	1.89 _a	.62	75.85***
	저소득가정 유아	74	2.23 _b	.47	
	일반가정 유아	73	2.89 _c	.21	
	합 계	196	2.45	.57	
과학적 사고	다문화가정 유아	27	1.56 _a	.53	99.29***
	저소득가정 유아	74	1.88 _b	.53	
	일반가정 유아	72	2.76 _c	.32	
	합 계	195	2.20	.67	
수리적 사고	다문화가정 유아	27	1.67 _a	.48	86.13***
	저소득가정 유아	74	1.99 _b	.60	
	일반가정 유아	74	2.79 _c	.23	
	합 계	197	2.28	.64	
사회학습	다문화가정 유아	27	2.00 _a	.66	74.30***
	저소득가정 유아	74	2.12 _a	.46	
	일반가정 유아	74	2.92 _b	.20	
	합 계	197	2.41	.59	
예술	다문화가정 유아	27	2.04 _a	.57	44.87***
	저소득가정 유아	74	2.36 _b	.55	
	일반가정 유아	63	2.88 _c	.23	
	합 계	185	2.53	.55	
신체 발달	다문화가정 유아	27	2.39 _a	.52	31.60***
	저소득가정 유아	74	2.64 _b	.42	
	일반가정 유아	72	2.96 _c	.11	
	합 계	195	2.73	.41	
발달총점	다문화가정 유아	27	1.96 _a	.50	92.55***
	저소득가정 유아	74	2.23 _b	.38	
	일반가정 유아	61	2.88 _c	.16	
	합 계	183	2.43	.50	

주. a, b, c는 Scheffé 검증결과, $p < .05$ 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p < .001$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와 저소득가정 유아의 발달수준을 알아보고, 이를 일반가정 유아와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인성과 사회성 발달, 언어와 읽고 쓰는 능력, 과학적 사고, 수리적 사고, 사회학습, 예술, 신체 발달영역 등 모든 하위영역과 전체 발달 영역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저소득층가정의 유아의 평균점수가 다음으로 낮았다. 이러한 수치의 차이는 통계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유아와 저소득층가정의 유아는 일반가정유아에 비해 전체적인 발달 수준이 낮으며, 저소득가정의 유아보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발달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유아와 저소득가정 유아의 발달 수준은 사회학습영역을 제외한 인성과 사회성영역, 언어와 읽고 쓰기영역, 과학적 사고영역, 수리적 사고영역, 예술영역, 신체발달영역 등 6개 하위발달영역과 발달총점에서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 그리고 저소득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는 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발달은 유아가 속해있는 가정의 형태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결과를 각 영역의 특성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과 사회성발달 영역과 사회학습발달 영역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인성과 사회성발달영역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사회학습발달 영역은 다문화가정 자녀와 저소득가정 자녀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가정의 유아는 사회성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연구(김해미, 2009; 조남희, 2006)와는 일치하지만 또래관계영역에 있어 일반유아에 비해 높은 수준을 가진 다문화가정 유아가 많다는 연구결과(문무경·조혜주, 2008)와는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인성과 사회성발달 영역과 사회학습발달 영역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각 발달 영역에서 요구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성과 사회성발달 영역에서는 유아의 상호작용 능력이나 자기조절 능력 그리고 문제 및 갈등 해결 능력 등 유아의 행동이나 기술을 평가하지만 사회학습발달 영역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 습관이나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족의 구조와 역할 이해 등 지식을 평가하기 때문인 것이다. 사회학습발달 영역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다문화가정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학습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발달 영역과 비교했을 때 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저소득가정 유아와 유사한 수준일 뿐 일반가정 유아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사회학습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긍정적인 인성과 사회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인간다움을 인정받도록 하는 성향인 인성(계영애·강정원, 2001)과 개인이 타인 혹은 집단의 관계를 이해하고 적응하며, 문제를 해결해가는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성(정용희, 1985)은 유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될 사회인으로서의 행동과 기본적인 자질과 단체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다문화·저소득가정 유아의 낮은 인성과 사회성의 수준은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일반 사회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무능한 존재로 낙인 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강석규(2004)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다양한 역할은 유아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어머니의 능력개발 역할과 성격형성역할은 유아의 인성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유아가 속한 가정의 생활수준은 유아의 인성과 사회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정명숙, 2009),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모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아의 인성과 사회성은 보다 사회적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부모 역할수행은 낮은 문화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경제적 빈곤과 맞물려 더욱 가중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서처럼 저소득가정 유아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 수준보다도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 의미 있는 교육으로 자연친화적인 나무 사랑체험이나 원예활동을 이용해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돕고 유아의 인성과 사회성의 발달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재도·이정화·정연옥, 2010; 조남희, 2006).

둘째, 유아의 사고과정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과학적사고, 수리적사고, 예술 발달 영역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발달 수준이 가장 낮고 저소득가정 유아, 일반가정 유아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 사고는 기존의 개념을 인지적 갈등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형성, 확장하는 개념 변화의 과정이며(조형숙, 1999), 수리적 사고는 새로운 정신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문제해결과정이고(신남주, 2010), 예술 역시 작품창조를 위한 과거의 평가와 앞으로의 평가 전략을 결정하는 지속적인 사고과정(윤수진, 2010)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유아와 저소득가정 유아의 낮은 사고 수준은 각 영역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보다는 유아가 알고 있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NCTM, 1989; 신남주, 2010, 재인용). 일반가정 유아에 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저소득가

정의 유아는 반복적으로 문제해결의 실패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학습에 대한 의욕 상실뿐만 아니라 자책감 등을 경험하고 이러한 감정은 괴리감으로 발전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와 저소득가정 자녀의 사고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인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유아는 자신에게 제시된 도전적 과제를 선택, 계획, 실행하면서 호기심이나 적극성, 객관성, 비판성 등의 태도를 기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이루고자하는지에 대한 반성적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사고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박고운, 2010; 박희숙, 2003; 윤수진, 2010).

셋째, 언어발달의 기초가 되는 듣기, 말하기 능력은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가능케 한다. 또한 유아의 읽고 쓰는 능력은 학습과 직결되며, 유능한 학습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다문화가정 유아와 저소득가정 유아의 낮은 언어능력은 선행연구(고지혜, 2005; 김혜미, 2009; 박민주, 2005; 신혜영·김명순, 2008; 오성배, 2009; 이현경 외, 2009; 황상심·정옥란, 2008)와도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수준이 가장 낮은 것은 이중언어로 유아기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 부모로부터의 언어모방의 기회가 적은 것 등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저소득가정 유아 역시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언어사용에서 일반가정의 유아보다 낮은 자극수준에 노출되어 있어 다문화가정 유아보다는 높지만 일반가정 유아보다는 낮은 수준의 언어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과 저소득가정의 결핍된 언어자극은 유아교육현장에서 보충되어야 하나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유아의 각 수준에 맞는 언어 자극을 자주 제공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저소득가정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책 읽기 중재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졌으며, 그림책 읽기 중재프로그램은 저소득가정 유아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찬화·김명순, 2010; 방소영·황혜정, 2011; 신혜영·김명순, 2008; 이민주, 2006.).

넷째, 움직임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신체발달은 대·소근육 발달과 같은 신체적 발달과 함께 힘의 강약에 따른 차이나 움직임과 방향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을 터득하게 한다. 이를 통해 유아는 인지적 발달, 정서발달, 문제해결 능력 및 사회성 발달, 창의성 발달과 같은 전반적인 발달을 고루 경험하게 된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신

체발달 수준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저소득가정 유아의 발달 수준이 낮은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과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영양공급을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영양요구량에 비해 공급이 적을 경우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홍현순, 2007). 특히 외모가 다른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또래의 편견으로 인해 신체활동 및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신체발달을 더 저해시키는 악순환적인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다. 유아의 뛰어난 신체발달은 또래 간 인기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놀이를 통해 다문화·저소득가정 유아가 신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환경을 탐색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7가지 하위 영역의 점수를 합한 발달 총점의 비교결과,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가장 낮은 발달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저소득가정, 일반가정의 유아 순으로 발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발달영역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와 저소득가정의 유아는 일반가정의 유아보다 낮은 발달수준을 보였고, 다문화가정 유아는 저소득가정 유아보다 사회학습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저소득의 발달수준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저소득가정 유아의 발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발달은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되어 있다. 영유아기의 교육적 경험 역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다문화가정의 영유아의 경우 일반가정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율에는 차이가 없지만, 그 외 특기활동이나 문화센터, 방문 학습지 등 부가적인 사교육 이용률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윤경, 2010). 더욱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일반가정 자녀보다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신지혜, 2008), 다문화가정 부모의 특성상 낮은 사회 환경에서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적 자극을 제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문무경·조혜주, 2008; 황상삼·정옥란, 2008). 이영주(200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문화적 위험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부모 중 모가 외국인일 경우 보다 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낮아지고 더 많은 위험요소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주, 2008; 신지혜, 2008).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모두 유아기에 속하며 약 90%에 해당하는 가정의 모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발달 수준은 더욱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다문화가정이면서도 저소득가정이라

는 이중적인 취약 환경에 놓여있어 저소득가정의 자녀보다도 낮은 발달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자녀에게 결핍된 환경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순환적인 문제를 가져온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부모의 심리적 문제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저소득가정의 자녀들은 형제나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경우가 많다(김경희·황혜정, 1998; 박민주 2005; 박현선, 2008). 저소득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 체벌을 사용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고 언성을 높이며, 일반가정의 부모에 비해 칭찬에 인색하고, 자녀의 일상에 관심이 적다(정미라·곽은순·윤장순, 2007). 즉, 경제적 압박은 부모의 심리·정서적 문제, 양육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기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박현선, 2008). 반면 가구의 소득이 적을수록 보육·교육기관에 다니는 비율은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투자하겠다는 교육적 투자 의지는 소득이 적을수록 낮아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고(김은설, 2010; 서문희, 2010), 저소득가정 부모들은 유아의 사회적 성공을 지지해 줄 능력이나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Alexander & Entwisle, 1988; McLoyd, 1998) 저소득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들과의 발달적 차이가 지속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과 저소득가정 유아의 발달수준을 일반가정 유아의 발달수준과 비교해봄으로써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가정 유아의 현재 발달 수준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일반가정의 유아보다 다문화가정의 유아와 저소득층가정의 유아의 발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 유아는 저소득가정의 유아보다 더 낮은 수준의 발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유아와 저소득가정 유아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공통적인 환경이 일반 가정 자녀보다 낮은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다문화가정의 부모특성이 저소득가정 자녀보다 낮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습영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와 저소득가정 자녀의 발달수준이 유사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질 수 있다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수준은 우보천리(牛步千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일반 유아에게 다문화가정 유아가 자신들과 다르지 않음을 다루는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또래의 편견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유아는 또래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 의해 상처 받고 있으며 자아정체감이 혼

들리고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해주듯 다문화가정 유아가 처한 사회문화적 특징은 저소득가정 유아들이 경험하는 물리적 결핍 그 이상의 것이다. 즉, 외국인 부모의 자녀, 외모가 다른 아이 등 사회적 편견을 포함한 다문화적 요소가 이들의 발달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유아와 저소득가정 유아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는 이들 간 사회적·심리적 요인이 다르게 작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다른 교육적 요구를 필요로 함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유아가 접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유아의 단편적인 발달만을 촉진하지는 않는다. 특히, 유아의 원만한 인성은 사회성이나 사회 학습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유아의 건강한 신체 역시 또래 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과학적사고, 수리적 사고는 예술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정지향적 사고와도 유사하기 때문에 어느 한 영역의 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보다는 통합적 접근에 기초한 활동이 효과적이라 하겠다(Kohi & Gainer, 1996, Tomas & Dennis, 1985, Saunders, 1969). 즉, 다문화가정 유아와 저소득가정 유아의 사회적 요구, 가정적 요구, 개인적 요구가 조화된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의 외국인 부모와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에게 부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다문화적 특성만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보다 다양한 변인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저소득층 가정과 다문화가정 유아를 선별하는데 있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를 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소득이나 경제적 수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보다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변인의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특성상 많은 다문화가정 유아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가정이나 일반가정의 유아의 사례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발달측정도구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담임교사가 평정하는 것으로 유아의 점수로 전반적인 발달 수준을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문화가정과 저소득가정에 대한 교사의 개인적 편견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와 저소득가정 유아의 발달을 일반가정 유아와 비교해 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

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문화가정 유아와 저소득가정 유아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며, 본 연구가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문희·강차연·김경희·김승경·김윤희(2007). **현대사회와 아동, 심리적 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 강석규(2004). 부모의 역할 수행과 유아의 인성발달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계영애·강정원(2001). 유아인성교육을 위한 인성적 덕목과 교수전략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5(1), 55-75.
- 고지혜(2005).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아동의 읽기 오류 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공진희·이민경(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가정 유아 부모의 특성과 유치원 교육 참여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9(4), 311-335.
- 김경아·오연주(2009). 전통미술작품 감상 및 관련 통합 활동이 유아의 미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2), 367-385.
- 김경희·황혜정(1998). 저소득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와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12-26.
- 김은설(2010). 영유아 보육·보육기관 및 서비스 이용 실태. 육아정책포럼: 육아정책 연구소.
- 김지영·엄용화·이현옥(2000). WSS의 발달적 체크리스트(Development Checklist)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0(3), 193-210.
- 김현·고석원·곽혜숙·차현화(2006). 동화를 활용한 사회적 역할 놀이와 동작표상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비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4), 135-160.
- 김혜미(2009). 저소득층아동의 신체협응 운동능력과 정서문제와의 관계분석. **용인대학교 특수체육연구**, 2009(7), 77-90.
- 권진수·신혜령·김정인·김성경·박지영(2007). **가족복지론**. 서울: 공동체.
- 문무경·조혜주(2008).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방안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박고운(2010). 구성주의 요리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주(2005). 가정결손여부가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아(2009). 또래관계를 소재로 한 그림책 활용 동작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연구**, 29(2), 139-161.
- 박재도·이정화·정연옥(2010). 초등학교에서 나무사랑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실과교육학회**, 23(4), 205-221.
- 박현선(2008). 빈곤지위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회**, 26, 113-137.
- 박찬화·김명순(2010). 그림책읽기 언어중재프로그램이 저소득 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아동학회지**, 31(3), 117-138.
- 박현옥(2006). 상황이야기 중재가 통합된 장애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비장애 유아의 또래 수용도에 미치는 효과. **유아특수교육연구**, 6(2), 65-82.
- 박희숙(2003).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통합적 미술교육방법이 유아의 그림 표상 능력과 논리 수학적 사고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7(2), 59-81.
- 방소영·황혜정(2011). 그림책읽기 언어중재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수용·표현언어 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9(7), 51-66.
- 보건복지부(2009a).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 보건복지부(2009b).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 오성배(2009).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문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0(3), 305-334.
- 윤수진(2010). Arts propel에 기초한 통합적 유아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주(2006). 저소득 가정 어머니-유아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과 유아의 언어능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주(2008).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응요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3(1), 79-101.
- 이윤이(2008). 생활주제관련 미술활동을 통한 유아의 미술표현 능력 변화. **한국보육지원학회**, 4(2), 128-155.
- 이학정(2003). 초등학교 정상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성취동기 및 학교생활적응 비교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경·서현·김동례(2009). 다문화가정 유아의 발달에 관한 조사 연구. **미래유아교육학**

회지, 16(3), 1-24.

- 서문희(2010). 영유아 보육·보육기관 및 서비스 이용 비용. 육아정책포럼: 육아정책 연구소.
- 신남주(2010). 동화를 활용한 가정 연계 수학 활동이 유아의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부모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영·김명순(2008). 저소득 가정 부모의 문해 발달 태도 및 가정 문해 활동과 유아의 어휘력, 인쇄물 개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9(4), 199-212.
- 정명숙(2009). 가족구조가 아동의 인성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라·곽은순·윤장숙(2007). 저소득층과 일반계층 아동의 양육 실태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347-369.
- 정용희(1985). 또래집단에서의 유아의 사회성 발달. **교육학연구**, 1, 111-120
- 정하성·유진이·이장현(2007). **다문화청소년이해론**. 과주: 양서원.
- 정혜영(2001). 포트폴리오 평가가 유아의 인지, 정의적 발달 및 부모의 자녀 평가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남희(2006). 원예치료가 저소득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농축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형숙(1999). 새로운 유아 과학교육의 방향. **제35회 유아교육 교사연수회 연수 자료**, 7-17.
- 최선화(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경(2010).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육아정책포럼: 육아정책연구소.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mm_06/imm
- 홍현순(2007). 성장이 저조한 유아와 정상성장을 보이는 유아의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상심·정옥란(2008).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과 관련변인 상관연구. **언어치료연구**, 17(1), 81-102.
- 황현이(2005). 가정의 소득 수준과 아동의 언어능력 및 가정 문해환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행정안전부(2008). **200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 Alexander, K., & Entwisle, D.(1988). Achievement in the first 2 years of school: Patterns and proces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3, 2.
- Edwards, P. A.(1989). Supporting lower SES mothers' attempts to provide scaffolding for book reading. In J. Allen & J. Mason(Eds.), *Risk makers, risk breakers: Reducing the risks for young literacy learner*(pp. 222-250). Portsmouth, NH: Heinemann.
- Heath, S. B.(1983). *Way with words: Language, life, and work in communities and classroom*. London: Cambridge University.
- Kolh, M. F., & Gainer, C.(1996). *Math art : Exploring math through act for 3 to 6 year olds*. Beltsville, MD: Gryphone House, Inc
-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1989). *Curriculum and Evaluation Standard in School mathematics*.
- McLoyd, V.(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 185-204.
- Meisel, S. J.(1993). Remaking classroom assessment with the work sampling system. *Young children*, 48(5), 43-49.
- Nievar, M. A., & Luster, T.(2006). Developmental processes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An application of McLoyd's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8(2), 320-331.
- Saunders, R.(1969). *A Suggested behavioral objective approach to art : K-6*. paper prepared for art assistance program. Connection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of Education. Hartford, CT August.
- Smilansky, S.(1992). *Children of divorce: The roles of family and school*. MD: BJE Press.
- Tomas, E., & Dennis, P. W.(1985). A Viewpoint on the arts as reinforcing the basic academic skills of students. *Basic Education*, January.
- Yeung, W. J., Linver, M R., & Brook-Gunn, J.(2002). How Money matters for Young Children's development: Parental investment and family process. *Child Development*, 73(6), 1961-1879.

·논문접수 2011년 9월 29일 / 수정본 접수 12월 11일 / 게재 승인 12월 15일

·교신저자: 방소영, 경기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수료, 이메일 luchia95@hanmail.net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Preschool Children's Development: Multi-cultural, Low-income and General Families

So Young Bang Hye Jung Hwang

This study intended to compare the development of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and low-income families to that of the children from the general fami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in all areas such as personality, sociability, language, the ability to read and write, scientific thinking, mathematical thinking, social learning and art, the development levels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and low-income families are lower than those of the general families, and the developmental level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lower than those of low-income families. This can mean that the children of each of the families show their own distinct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because other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must be at play between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and low-income families. In other words, it can be understood that each of the multi-cultural and low-income families need different educational requirements from that of the children of general families. Accordingly, a program interfacing the social, domestic and personal needs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and low-income families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Key words: vulnerable family, multi-cultural family, low-income family, development